

남양주 묘적산(妙寂山)의 역사와 문화공간적 의미

김세호*

<차례>

1. 서론
2. 묘적산과 묘적사의 역사
3. 장동김문의 묘적산 유람
4. 김창협 사후 묘적산의 기록
5.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이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면서 경기(京畿) 일대는 도성 근교의 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곳에는 문화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공간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일천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묘적산(妙寂山)을 중심으로 그 역사와 공간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묘적산은 행정구역상 양주(楊州)에 속한 곳으로 지리지 등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조선 전기에는 도성 근교의 사냥터로 활용되며 역사에 이름을 올렸고,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의 선영이 경영되며 풍수적인 가치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묘적산에는 왕실의 후원하에 묘적사(妙寂寺)가 들어섰고 묘적사는 조선 후기 문인들의 유람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장동김문(壯洞金門)은 묘적산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헌(金尙憲)을 시작으로 김수흥(金壽興) 및 김수항(金壽恒)의 아들들은 선대의 자취를 이어받아 묘적산에 발을 들였다. 특히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金昌協)은 묘적산의 산수를 사랑하여 이곳에 별서를 건립하고자 했고, 묘적사는 평생의 마지막 유람처로 기억되었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장동김문에 의해 주목된 묘적산은 이후 도성 근교의 대표적인 명승(名勝)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중에서도 김창협과 결부된 공간적 의미는 그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후대 문인들은 김창협의 자취를 그리며 묘적산을 유람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이러한 유람은 19세기까지 이어졌으니, 이는 묘적산과 묘적사의 남다른 위상을 증언하고 있다.

남양주, 묘적사(妙寂寺), 백봉산(栢峰山), 김창협(金昌翕), 이운(李漣)

1. 서론

조선이 건국하고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면서 경기(京畿) 일대는 도성 근교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다. 조선 전기에는 훈구파(勳舊派)의 전장(田莊)이 들어섰고 조선 후기에는 사림파(士林派)의 선영(先塋)과 별서(別墅)가 경영되었다.¹⁾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관련 연구는 여전히 일천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과거의 자취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묘적산(妙寂山)도 그중 하나이다.²⁾

묘적산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자리한 산이다. 행정구역상 평내동(坪內洞), 화도읍(和道邑), 와부읍(瓦阜邑)에 걸쳐 있어 지리적으로 남양

1)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경강 유역의 별서가 지닌 의미를 조망한 적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권력을 잃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공간, 정세에 따른 일시적인 우거의 성격,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자유로운 삶의 추구 등으로 제시했고 아울러 문학과 풍류가 어우러진 현상에 주목했다. (이종목,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동호편』, 경인문화사, 2016, 11~33쪽 참조) 조선 후기 도성 근교의 별서 또한 이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문헌에서 묘적산은 “妙寂山” 또는 “妙積山” 등으로 표기되었다. 여기서는 다수의 기록에 의거하여 전자의 표기를 따랐음을 밝힌다.

주의 중심에 위치한다. 몇몇 사전에 묘적산이라는 표제어로 간략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다. 오히려 오늘날 지도에 묘적산 대신 백봉산(栢峰山)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면서 묘적산으로 전하던 과거의 기록은 사실상 잊혀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묘적산에는 묘적사(妙寂寺)라는 사찰이 전한다. 묘적사는 묘적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사찰로 보이지만, 그 연원은 자세하지 않다. 원효(元曉) 때 창건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이 전할 뿐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기문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소개된 적이 없으며, 조선 중기 이후로 사실상 폐사가 되었다는 역시 알 수 없는 설명만 남아 있다.³⁾ 사실상 묘적산과 묘적사에 주목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 하겠다.⁴⁾

이러한 묘적산과 묘적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아름다운 산수로 인해 주목받으며 남다른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석실을 중심으로 활동한 장동김문(壯洞金門)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만년에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존재가 역사에 기억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글에서는 묘적산과 묘적사의 역사를 개괄하여 역사성을 검토하고 장동김문과 관련 문인들의 시문을 통해 그 장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묘적산과 묘적사의 역사

묘적산과 묘적사의 이름은 조선 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증동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묘적사」; 『두산백과』, 「묘적산」; 「묘적사」.

4) 선행연구에서 묘적산에 살았던 이운(李漣)을 조명한 연구가 있어 많은 참조가 되었다. (김영진, 「스승의 뜻이 담긴 책, 『文趣』」, 『문헌과해석』 24, 문헌과해석사, 2003, 105~106쪽 참조)

국여지승람』 「양주목(楊州牧)」 기사에 따르면, 묘적산은 고을 동쪽 70리 지점에 있다는 설명이 보이고, 묘적산에 자리한 묘적사에는 김수온의 기문이 전한다고 하였다.⁵⁾ 한편, 조선 후기 유형원(柳馨遠)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묘적산은 이칭이 팔곡산(八谷山)으로 골짜기의 샘물이 맑고 돌이 기이하다며 오늘날 전하는 묘적사계곡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다.⁶⁾ 양주(楊州)의 대표적인 명승(名勝)으로 소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선 후기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묘적산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묘적사만 소개되어 있다.⁷⁾ 묘적산 북쪽에 천마산(天摩山)이 있고 남쪽에 차유령(車踰嶺)이라는 고개가 전하는데, 이들이 상도(上道)와 하도(下道)의 교통로로 애용되며 지리적 중요성이 줄어든 결과에 기인한 듯하다.⁸⁾ 그러나 19세기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묘적산이 등재되고 노적사(露積寺: 묘적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증언한 기록을 보면 묘적산과 묘적사의 자취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하다.⁹⁾

이러한 묘적산은 조선 전기 정사의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세종(世宗) 대 강무장(講武場)의 하나로 선정되며 이후 국왕들이 행차했던 사실에 기인한다.¹⁰⁾ 묘적산 일대에서 사냥 등을 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경기(京畿), 「양주목(楊州牧)」.

6) 유형원(柳馨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권2, 「양주목(楊州牧)」.

7) 『여지도서(輿地圖書)』 권상(上) 경기도(京畿道), 「양주(楊州)」 〈사찰(寺刹): 奉印寺·妙寂寺皆在天摩山東距八十里〉.

8) 상도(上道)와 하도(下道)는 조선시대 남양주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대로였다. 상도는 천마산(天摩山)을 넘었고 하도는 차유령(車踰嶺)을 넘었다. 이로 인해 이곳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다수 전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묘적산의 언급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도와 하도는 각각의 지명으로 전하다가 일제강점기 무렵 화도(和道)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9) 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大東地志)』 권2, 「양주(楊州)」: 妙寂山: 東南七十五里, 西有露積寺.

10)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世宗) 30년(1448) 12월 10일 2번째 기사.

세조(世祖) 대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께서)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했다. 포시(哺時)에 비바람이 몹시 차가워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김연지(金連枝)·행 상호군(行上護軍) 이비(李埤)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이 전교했다. “오늘의 비바람에 사졸(士卒)들 가운데 기한(飢寒)에 떠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경들은 산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사졸들을 찾아 구하여 구호하라.” 날이 저물어 거가(車駕)가 돌아오다 길에서 기한에 떠는 자를 보면 즉시 대궐의 음식을 먹였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술과 고기를 주어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사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저녁에 이궁(離宮)에 머물렀다.¹¹⁾

세조가 1458년(세조 4) 9월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한 기사이다. 강무를 시행한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훈련을 위해 묘적산을 방문한 이유가 드러난다. 당시 비바람이 몰아쳐 날씨가 추워지자 세조는 군사들을 염려하여 안부를 살피고 음식을 베풀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에 이궁(離宮)에 머물러 잤다고 한 것은 태종(太宗) 대 건립한 풍양궁(豐壤宮)을 가리킨다. 묘적산 일대에서 강무가 행해진 사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¹²⁾

묘적산의 강무는 세조 이후에도 이어졌다. 다만 성종(成宗)의 경우는 즉

11)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4년(1458) 9월 30일 1번째 기사: “觀獵于妙寂山。哺時，風雨甚寒，召京畿觀察使金連枝·行上護軍李埤等，傳曰：‘今日風雨，慮士卒有飢寒者，卿等陟降山谷，搜求救護。’日暮駕還，道見飢寒者，即以內膳饋之。召諸將授酒肉，令療飢寒士卒。夕次于離宮。”

12) 풍양궁은 태종(太宗)이 상왕으로 물러나며 건립한 이궁이다. 세조는 즉위 후 선왕의 거처를 중시하여 풍양궁을 수리하고 자주 이곳에 행차했다. (『세조실록』 세조 5년(1459) 5월 1일 2번째 기사; 1월 8일 3번째 기사 등) 이때 강무에서 내금위(內禁衛) 조한신(曹漢臣)·최윤(崔倫) 등이 사졸 두 명을 화살로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세조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여 부의로 곡식을 내리고 책임자를 신문하도록 명을 내렸다.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3월 18일 1번째 기사; 3월 20일 1번째 기사; 2번째 기사)

위 초 묘적산 일대가 강무장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에 폐단이 발생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이곳에서의 강무를 다소 자제했던 것 같다.¹³⁾ 반면 연산군(燕山君)은 도성 근교 일대에 백성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금표를 설치해 사냥터를 구획했다. 묘적산 또한 금표 안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한동안은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⁴⁾

조선 전기 묘적산이 강무장의 성격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면,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의 묘소 경영과 결부되며 이름을 얻었다. 풍수에 따른 지리적 성격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태조(太祖)가 건원릉(健元陵)의 온 국면을 정하고 천마산(天摩山)을 바라보며 칭찬했다. 무학(無學)이 말하기를, “이곳은 조정이 포열(布列)한 형세입니다. 훗날 대족(大族)의 선조가 반드시 이곳에 묻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묘적산 아래 여덟 명당(明堂)이다. 비록 잔약하고 짧은 산기슭이라도 모두 장례를 지내 백여 리에 뻗어 평구강 가에서 그치니, 천 개의 가지와 만 개의 잎사귀처럼 그 수를 셀 수가 없다.¹⁵⁾

이유원이 기록한 「천마산룡(天摩山龍)」의 전문이다. 태조(太祖)와 무학(無學)의 전설을 들어 예로부터 묘적산 일대가 명당(明堂)으로 지목된 사실을 설명했다. 제목을 천마산이라 한 것은 묘적산이 천마산 남쪽으로 이어진 산줄기였기에 이를 고려한 결과인 듯하다. 특히 묘적산 아래 여덟 명당의 존재를 밝힌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산줄기가 빈약한 곳마저도 무수한

13)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成宗) 5년(1474) 10월 9일 2번째 기사.

14)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10월 10일 2번째 기사.

15)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권32, 「천마산룡(天摩山龍)」: 太祖定健元陵全局, 望見天摩山, 稱之. 無學曰: “此朝廷布列勢也. 後凡大族之先, 必藏于此, 即妙寂山下八明堂也. 雖孱山短麓, 舉皆入葬, 亘百餘里, 止于平邱江上, 千枝萬葉不計其數.

묘소가 자리한 사실을 설명했다. 조선 후기 묘적산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경화세족(京華世族)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실제 조선 후기 묘적산 관련 기록을 보면, 장지(葬地)를 밝히는 과정에서 묘적산을 언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는 훗날 왕릉(王陵)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홍릉(洪陵)과 유릉(裕陵)의 풍수를 논한 기사를 보면 묘적산의 산세를 고려해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다.¹⁷⁾ 조선 전기 강무장에서 도성 근교의 주목할 만한 공간으로 그 의미와 위상의 변화가 감지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묘적산에는 묘적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지금의 묘적사계곡을 따라 오르면 다다를 수 있는 곳으로 묘적산의 문화사가 축적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공간이다. 묘적사의 기원은 김수온의 「묘적사중창기(妙寂寺重創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온은 도입부에서 그 연원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팔곡산(八谷山)은 양주 치소의 남쪽에 있으니 서쪽으로 흥인문(興仁門)과의 거리가 겨우 50여 리이다. 산속에 절이 있고 이름이 묘적사(妙寂寺)이다. 팔곡(八谷)의 물이 절 앞에서 합쳐지고 아래에 폭포가 세 층으로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관음(觀音)이 머리 감고 발을 씻은 곳이라고 하며 족적이 완연하다.

16) 지금은 많은 곳이 사라졌지만 현전하는 기록에서 조선 후기 묘적산에 자리했던 선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능성구씨(綾城具氏), 여산송씨(礪山宋氏), 여주이씨(驪州李氏), 전의이씨(全義李氏), 청송심씨(靑松沈氏) 등의 묘소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식(李植), 『택당별집(澤堂別集)』 권10, 「綾城府院君具公諡誌」; 허목(許穆), 『기언별집(記言別集)』 권20, 「木翁宋先生墓碣銘」;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권67, 「祖考司憲府持平贈吏曹參判府君行狀」; 이견명(李健命), 『한포재집(寒圃齋集)』 권9, 「水使李公墓碣銘[并序]」; 黃景源, 『강한집(江漢集)』 권16, 「通訓大夫和順縣監羅州鎭管兵馬節制都尉沈公墓誌銘[并序]」 등 참조)

17)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高宗) 37년(1900) 6월 15일 12번째 기사; 7월 30일 4번째 기사.

보조(普照)·태고(太古) 두 국사가 유람한 곳으로 일찍이 머무른 적이 있다. 불행히도 사냥 불이 일어나 절도 따라서 훼손되었고 산 또한 강무장이 되었다.¹⁸⁾

김수온이 지은 「묘적사중창기」의 시작이다. 묘적사의 유래를 말하면서 묘적산에 대해 서술했다. 처음에 등장하는 팔곡산(八谷山)은 묘적산의 이칭이다. 동대문과 대략 5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묘적산을 팔곡산이라 한 이유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여덟 개의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그 이름이 생겨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묘적사 아래 세 층으로 이루어진 폭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묘적사계곡에 자리한 몇몇 폭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수온은 본래 이곳에 묘적사가 있었으니, 보조국사와 태고국사가 머문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하였다. 보조국사는 고려시대 승려인 지눌(知訥)을 말하고 태고국사는 보우(普愚)를 가리킨다. 지눌은 조계종(曹溪宗)을 개창한 인물로 유명하고 보우는 고려 말기 선종(禪宗)을 발전시켜 조선시대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머물렀던 역사를 말한 것으로 유서 깊은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묘적사가 화재로 전소되며 강무장이 된 배경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온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묘적사의 중창과정을 서술하며 승려 유(宥)의 편지를 인용해 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불전(佛殿)은 3칸 전후퇴(前後退)이고 동서의 상실(上室)에는 파침(把針)이 있으며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은 모두 다른 절과 같습니다. 그 남쪽에 장랑(長廊)을 비껴 세워 안팎을 막았으며 종각(鐘閣) 두 칸은 행랑 밖에 세웠습니

18) 김수온(金守溫), 『식우집(拭疣集)』 권2, 「묘적사중창기(妙寂寺重創記)」: 八谷山在楊州治之南, 西距興仁門僅五十餘里. 山中有寺, 名曰妙寂. 八谷水合于寺前, 而下有瀑布三層, 相傳觀音浴濯之處,, 足跡宛然. 普照大古兩國師奇覽所在, 常住錫, 不幸獵火所燹, 寺隨以毀, 而山亦爲講武場矣.

다. 다시 행랑 밖 남쪽에 12칸을 건립하여 이름을 외행랑(外行廊)이라 하고 가운데 사문(沙門)을 만들었으니 또한 다른 절과 같습니다. 칠로 단청을 하였고 빗장과 짐기 또한 모두 다른 절과 같습니다. 관음전(觀音殿) 층가는 회주(化主)가 아직 끝내지 못하고 나가버려 훗날 오는 자가 이어 완성해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담장을 둘러 호표(虎豹)의 근심을 방지하였습니다.”¹⁹⁾

역시 「묘적사중창기」의 일부로 승려 유의 편지를 전제해 묘적사의 제도를 기록한 부분이다. 불전(佛殿)은 3칸 전후퇴(前後退)로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동서의 상실(上室)에 파침(把針)이 있다고 하였다. 파침은 의미상 승려들이 바느질하는 곳을 말하니 기거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장랑(長廊)과 종각(鐘閣), 그리고 외행랑(外行廊)과 사문(沙門)을 순서대로 기술하여 사찰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수온은 기문을 통해 위와 같은 제도 이외에도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처음에는 신빈김씨(愼嬪金氏)가 세종을 위해 자금을 내어 중창하려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다시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 모친 신빈김씨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니 승려 유가 회주(化主)가 되어 마침내 묘적사가 완성된 사실을 말했다.²⁰⁾ 그 제도가 그리 특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왕실의 후원 하에 건립된 성대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수온의 기문 이후로 묘적산과 묘적사의 연혁 및 제도 등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기문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시문에 묘적사의 존재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묘적사의 역사는 지속되었던 것이 분명

19) 김수온, 위의 글: 佛殿三間前後退, 東西上室, 有把針, 禪堂僧堂, 皆如他寺. 橫立長廊其南, 以廡內外, 鍾閣二間, 立於廊外. 又建十二間於外南, 名曰外行廊. 中爲沙門, 亦如他寺. 塗墍丹青樅椎什器, 亦皆如他寺. 觀音殿層閣, 則化主未畢而出去, 以俟後來之續成, 繚以周牆, 以防虎豹之虞.

20) 김수온, 위의 글.

하고 이후 묘적산의 유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묘적산이 명당으로 여겨지며 묘적산을 중심으로 경영된 묘소의 기록 또한 방대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묘적산과 묘적사가 도성 근교의 주목할 만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일면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김정호(金正浩), 『동여도(東輿圖)』, 묘적산 일대, 19세기. 평구역에서 구곡역으로 향하는 길에 묘적산의 지명이 보인다. 천마산과 산세가 연결되어 같은 산줄기로 인식한 정황을 볼 수 있다.

3. 장동김문의 묘적산 유람

조선 후기 사림과가 집권하며 도성 근교에 선영이 경영되고 별서가 건립되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별서 인근의 산수를 향유했고 특히 묘적산은 아름다운 산수를 지닌 곳으로 주목 받았다. 현전하는 문집 등의 시문에서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 조선 후기 장동김문과의 관련성은 단연 주목할 만하다. 묘적산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면서 새로운 문화사를 개창한

역사가 확인된다. 묘적산 고유의 명승적 가치에 주목한 결과이다.

조선 후기 장동김문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척화(斥和)를 주장한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을 가리킨다.²¹⁾ 서울 장의동(莊義洞) 일대에 세거하여 장동김씨(壯洞金氏)로 회자되었다. 김상헌은 선대로부터 석실(石室)을 물려받아 송백당(松栢堂)을 경영한 행적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석실 인근의 묘적사 승려와 교류했던 것으로 보이고,²²⁾ 아울러 윤흔(尹昕)의 시에 차운하여 석실에서 10리 거리에 묘적사가 있는데 천석이 아름답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²³⁾

김상헌의 시문은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훗날 김상헌의 손자 김수홍(金壽興, 1626~1690)은 묘적동(妙寂洞)을 방문해 시를 지었다.

| | |
|----------|--------------------------------------|
| 水轉山回細路微, | 물 감돌고 산 휘돌아 오솔길 은미하고 |
| 密林深處鳥聲稀. | 우거진 숲 깊은 곳에는 새 울음 드무네. |
| 解衣盤礴蒼苔石, | 옷을 풀고 이끼 낀 돌 위에 걸터앉으니 |
| 誰識人間有是非. | 인간세상에 시비소리 있음을 누가 알까. ²⁴⁾ |

김수홍이 1678년(숙종 4) 묘적산 골짜기를 찾아 지은 시이다. 이때 모두 2수의 시를 지었고 인용한 것은 그중 1수에 해당한다. 현전하는 시문 가운데 묘적산 골짜기를 읊은 최초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시기상 갑인예송(甲

21) 여기서는 김상헌의 후손 가운데 김수홍(金壽興)과 김창협, 김창흡 등을 위주로 살펴 본다. 김수홍은 김상헌의 손자이고, 김창협과 김창흡은 김수홍의 아들로 김수홍은 김수홍의 아우가 된다. 기타 인물들의 가계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거듭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2)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권3, 「贈妙寂僧」: 妙寂禪房隱翠微, 石門松逕客來稀. 蒲團睡起無餘事, 滿樹蟬聲獨掩扉.

23) 김상헌, 『청음집』 권4. 「次陶齋韻」: [弊居十里有妙寂寺, 頗有泉石之趣]

24) 김수홍(金壽興), 『퇴우당집(退憂堂集)』 권1, 「訪妙寂洞」.

寅禮訟)으로 아우 김수항이 영암에서 철원으로 이배되는 길을 배운 뒤 묘적산을 찾은 듯하다. 김상헌이 예찬한 기록에 의거하여 방문한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속세의 자취가 전혀 묻어나지 않는 그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²⁵⁾

이러한 묘적산 유람은 김수항의 아들들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요 인물은 김창협과 김창흡(金昌翕) 등이다. 그 시기는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무렵으로 요약된다.²⁶⁾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김수항이 사사되자 그의 아들들은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으로 들어가 삼년상을 치르고 은거한 적이 있다. 다시 갑술환국이 일어나 정세가 변하자 세상 밖으로 나와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갔고 석실 일대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묘적산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묘적사를 유람한 시는 다음과 같다.

| | |
|--------|-------------------|
| 雪裏半欹塔, | 눈 속에 탑 반쯤 기울었고 |
| 雲門斜注泉. | 운문에는 냇물 비껴 쏟아지네. |
| 山寒無佛日, | 추운 산 절집에 해 안 들고 |
| 樹老更人煙. | 늙은 나무에 인가 연기 있구나. |
| 成毀看茲土, | 이곳에서 성쇠를 보게 되니 |
| 依歸合暮年. | 만년에 귀의함이 합당하겠지. |

25) 김수홍은 2수에서 묘적사의 자취를 묘사했고 외로운 탑만 남아 있다고 하여 잠시 폐사가 된 것처럼 그려냈다. 다만 이후 묘적사 유람이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폐치된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적사의 탑은 선행연구에서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등사(懸燈寺)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65쪽.)

26)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에 1682년(숙종 8) 묘적사를 유람한 시가 보이지만 이는 그의 행적에 대입해볼 때 도봉산 묘봉사(妙峰寺)의 오기인 듯하다. 묘봉사는 도봉산에 있던 사찰로 묘봉암(妙峰庵)으로 일컬어졌다. 이러한 착오는 상대적으로 장동김문의 생애에서 묘적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김창흡, 『삼연집습유』 권2, 「自松川訪妙寂寺之九」)

何家大小隱, 하씨 집안 대소 은자에게
欲學意悠然. 유연한 뜻 배우고자 하노라.27)

김창흡이 1702년(숙종 28) 눈 내리는 날 묘적사를 방문해 지은 시로 2수에 해당한다.²⁸⁾ 시의 제목에 묘적암이라 하였는데 당시 ‘사’와 ‘암’을 혼용해 썼던 모양이다. 수련(首聯)에서 오래된 탑과 폭포가 쏟아지는 정경을 묘사했고, 함련(頷聯)에서 공허한 절의 모습과 사람의 자취를 읊었으며, 경련(頸聯)에서 만년에 은거할 만한 호젓한 곳을 그려냈다.²⁹⁾ 미련(未練)은 ‘하씨삼고(何氏三高)’의 고사를 말한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 은거하리라는 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부친 김수항의 영향 하에 의미를 부여하며 심상을 표출한 모습이다.³⁰⁾

이러한 장동김문의 묘적산 유람은 이운(李雲)과의 인연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운의 본관은 평창(平昌), 자는 성원(聖源)이다. 김창흡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로 묘적산 아래 문곡(文谷)의 담화헌(湛華軒)에 살았다.³¹⁾ 장동김문의 문인들은 이운과 교류하며 담화헌을 왕래했고 이를 계기로 묘적사 등을 더욱 자주 유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묘적산 유람

27) 김창흡, 『삼연집(三淵集) 권8, 『雪中訪妙寂菴』.

28) 김창흡은 1수에서 큰 눈이 내려 흥취를 금치 못해 묘적암을 유람한 사실을 밝혔고, 맑고 깨끗한 분위기와 폭포를 구경한 감상을 노래했다. (김창흡, 위의 글: 大雪莫禁興, 超超神欲行. 瓊林歷披拂, 藜杖到崢嶸. 半嶺寒風積, 遙山亂皴平. 清狂堪赤脚, 看瀑也奇情.)

29) 경련에는 “[一作不住應空理, 隨緣亦百年]”라는 세주가 달려 있고, “가지 않으면 웅당 공허한 이치지만, 인연 따르면 또한 백 년이 된다네.”라고 풀이된다. 묘적암이라는 불교적 심상에 기대어 이와 같은 구절을 읊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하씨삼고(何氏三高)는 양 무제(梁武帝) 때 회계산(會稽山)에 은거했던 하운(何胤)·하구(何求)·하점(何點)을 가리킨다. 하운을 대산(大山)이라 하고 하점을 소산(小山)이라 일컬었다. 앞서 김창흡의 부친 김수항이 형제들의 별서를 시로 읊으며 이 고사를 쓴 적이 있다. (김수항, 『문곡집(文谷集)』 권5, 『敬次伯氏寄示之作』)

31) 신정하(申靖夏), 『서암집(恕菴集)』 권11, 『湛華軒記』.

을 마치고 담화현에 묵은 행적들이 보이기도 한다.³²⁾

그중에서도 김창협은 묘적산에 유달리 각별한 정을 품었다. 만년에 묘적산에 별서를 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이명(李頤命)에게 보낸 편지에 그 계획이 자세하다.

근래 묘적사에 가서 폭포와 냇물을 구경하고 이어 정사(精舍) 터를 보았습니다. 처일(處一)이 이미 몇몇 중들과 함께 초려를 엮고 들어가 살며 재목을 베어 산터미로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여섯 섬의 곡식만 있으면 여름 중에 집을 세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거북이 등 털을 굵는 일과 같이 어렵기에 참으로 염려할 만합니다. 벗들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마다 번번이 백련사(白蓮社) 호계(虎溪)의 뜻을 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되면 우리들은 진실로 도잠(陶潛)과 사령운(謝靈運)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³³⁾

이상은 김창협이 1706년(숙종 32) 이이명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묘적사에 새로 정사(精舍)를 지을 계획을 고백했다. 묘적사 승려 처일(處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사실이 보이니 묘적사가 묘적산의 유람과 정착에 많은 바탕이 되었음이 드러난다. 김창협은 1700년(숙종 26) 외아들 김승겸(金崇謙)이 세상을 떠나자 극도의 슬픔으로 한동안 방황하며 지낸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이운과의 인연으로 담화현에 머물며 만취대(晩翠臺)를 유람했고 만년으로 접어들며 묘적산에 마음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32) 김창집(金昌集), 『몽와집(夢窩集)』 권1, 「妙寂歸路, 少憩湛華軒」: 谷口開微徑, 溪頭見小亭. 山禽政窺戶, 野客忽過庭. 柳暗雲嵐住, 花明几案馨. 偏憐幽澗水, 清韻滿疏櫺. 1708년(숙종 34) 아우 김창협과 묘적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담화현에 들러 지은 시이다.

33)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권17, 「與李養叔[頤命]」: 頃往妙寂觀瀑泉, 仍視精舍處, 處一已與數僧結草入居, 伐材山積. 若得五六斛穀食, 則足以夏中立屋, 而此殆同於龜背之毛, 誠可念也. 然其迎送之際, 便有蓮社虎溪意, 此事若成, 吾輩真不羨於陶謝矣.

이러한 김창협(金昌協)의 바람은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만년의 행적을 보면, 1706년 아우 김창업(金昌業)에게 정사 터를 물색한 사실을 말했고 이듬해인 1707년(숙종 33) 10월 묘적사를 유람했으며 1708년(숙종 34)에는 삼주(三洲)에서 형제들과 뱃놀이를 즐긴 뒤 다시 백형(伯兄) 김창집(金昌集)과 묘적산을 유람했다고 하였다.³⁴⁾ 별서를 짓기 위해 공을 들인 모습이 역력하고 이는 주변 인물들도 충분히 인지했던 바이다. 이운은 훗날 스승 김창협이 손수 목록을 정해 책으로 만들라고 했던 『문취(文趣)』를 들고 묘적산 취미사(翠微寺)에 올라, 생전 옥렴천(玉簾泉) 가에 서실을 짓고 왕래하며 머무르고자 했던 스승의 뜻을 추억한 바 있다.³⁶⁾

김창협과 김창흡은 ‘농연(農淵)’으로 병칭되며 후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평생 은거하며 학문에 침잠한 행적이 귀감을 얻었고, 묘적산 유람은 이들에 대한 남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작용했다. 신정하(申靖夏, 1680~1715)는 이운에게 전해 들은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무릇 두 공(김창협·김창흡)과 신수를 유람하면, 농암(金昌協)은 반드시 “어디에 볼 만한 곳이 있으니 가볼 만하다”라고 하고 돌아올 때 또한 “다녀올 만했

34) 김창협, 『농암집』 권24, 「游晚翠臺記」: 壬午秋夕, 省墓楊山, 因有晚翠臺之行, 過宿李溪湛華軒, 古松老柳, 礪谷深窈, 泉流從窗下過, 清駛可聽, 至夜月明, 意益泠然, 夢中髣髴得句云: “流泉復何意, 終夜自淙淙.”, 其上蓋道曉月傷神之意, 而忘不能記. 余自哭子以後, 不復作閒行三年矣. 此來始一欣然, 而詩語之發於夢寐者尙如此, 可悲也已.

35) 『농암집』 권36, 「年譜下」. 戊子[先生五十八歲]: 閏三月, 陪夢窩公乘舟, 觀魚于前江. 時, 夢窩公罷相, 退居金村, 與先生朝夕相從. 至是, 作觀魚會, 弟稼齋·圃陰與焉. 陪夢窩公, 遊妙寂寺.

36) 이운(李滙), 『문취(文趣)』 권하, 「妙寂山翠微寺讀文趣記」: 妙寂山翠微寺之成已久矣, 而余未嘗一宿其中, 然或問花, 或尋瀑, 或看霜葉, 每一日往返而止. 己丑十一月十八日, 與吉甫襆被而來, 遂携文趣二卷, 卽漢魏以下, 至明人所作. 佛廬僧舍, 山居野處, 深林邃宇, 往往有趣語之文, 莫不畢備於此. 農巖先生嘗手抄目錄, 屬溪謄出爲卷曰: “將待此寺之成, 築書室玉簾泉傍, 往來留止, 相對諷誦, 以爲山中一段奇事也.” (김영진, 위의 글, 105~106쪽 참조.)

다”라고 말한다. 삼연(김창흡)은 가는 곳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올 때도 함께 오지 않는다. 어느 날 (삼연이) 성원(聖源: 이운)과 묘적사를 방문하고 오면서 성원의 담화헌에 묵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 눈이 내리려 하자 성원이 눈 때문에 가기를 사양했다. 삼연이 흥이 깨졌다며 크게 꾸짖고는 홀로 스스로 걸어나가니 이운도 하는 수없이 따라 나섰다. 골짜기로 들어서자 눈이 크게 내려 한 자 정도 땅을 뒤덮었다. 성원은 소매로 자주 그 모자를 털면서 갔다. 삼연을 돌아보니 온몸이 모두 눈으로 뒤덮였고 모자는 눌러 꺾이려 하였으나 끝내 한 번도 털어내지 않았다. 황홀하여 유리빛과 같고 여래불이 세상에 나온 것 같았다.³⁷⁾

신정하가 1705년(숙종 31) 자신의 별서인 석호(石湖)의 식구정(息履亭)에서 새벽에 이운과 나눈 대화를 전제한 기사이다.³⁸⁾ 김창협과 김창흡 모두 이운의 담화헌을 자주 찾고 함께 유람했기에 이러한 경험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운에 의하면 김창협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며 필수여행지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라 하였다. 반면 김창흡은 굳이 계획하지 않고 흥취에 따라 유람을 즐겼다고 한다. 이운이 그 예시로 제시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1702년 눈이 내린 날 묘적암을 방문했던 기억을 말한 듯하다. 아울러 장동김문의 묘적산 유람이 이운과의 인연으로 진행되었음을 기억할 만하다.

이러한 일화가 방증하듯 묘적산과 묘적사의 기록은 장동김문의 시문에 거듭 등장한다. 이외에도 이곳을 유람한 기록과 묘적산을 언급한 경우를

37) 신정하, 『서암집』 권16, 「漫錄」: 凡與二公遊山水間, 農巖則必曰: “某處有可觀, 可往” 歸時又曰: “可還.” 三淵則往不語人, 歸不待俦. 一日約與聖源訪妙寂, 來宿聖源湛華軒. 翼朝天寒欲雪, 聖源以雪辭之, 三淵大責以沒興, 獨自步出, 聖源不得已從之, 入谷, 雪大作鋪地一尺. 聖源則以袖頻拂其巾帽而行, 回顧三淵, 渾身皆雪, 帽壓欲摧, 而終不一拂, 悅然如琉璃光, 如來佛出世.

38) 신정하의 석호 별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종목, 「신정하가 달밤에 배를 띄운 석호」, 『조선의 문화공간』 4, 휴머니스트, 2006, 90~115쪽.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 김창협은 아우 김창업도 이운과 친밀하게 교류했고 1707년에는 묘적산에서 사냥을 구경했다.³⁹⁾ 김창흡은 1714년(숙종 40) 서울의 청풍계(淸風溪)에 있던 원심암(遠心菴)에서 사흘을 묵고 자신의 별서가 있던 벽계(槩溪)로 향하는 길에 묘적동구(妙寂洞口)를 지나며 시를 지은 적이 있다.⁴⁰⁾ 이때 김창업은 숙형의 시에 차운하며 중형 김창협과의 기억이 담긴 공간임을 되새겼다.⁴¹⁾ 처음 김상헌에게서 시작된 역사가 후대로 이어지며 의미 또한 배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김창협 사후 묘적산의 기록

조선 후기 장동김문은 묘적산이 남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김창협은 단연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창협은 당대 명현(名賢)으로 추앙받았거니와 묘적산에 별서를 꿈꾸고 평생 마지막으로 이곳을 유람했다. 후대 문인들은 이러한 상징성에 주목하여 묘적산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여타 문인들의 시문을 통해 묘적산 유람의 면모를 그 의미를 알아본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는 여러 산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묘적산은 애초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았다. 예를 들면, 중종(中宗)의 부마 송인(宋寅)은 동호(東湖)에 수월정(水月亭)을 경영한 적이 있고, 이때 지은 팔경시(八景詩)의 처음에 묘적산의 이름이 등장한다.⁴²⁾ 박미(朴澗)는 청백당(靑

39) 김창업, 『노가재집』 권3, 「觀獵入妙積山中, 遇重興僧海眼, 記昔壬子冬, 余做進士會試工夫, 棲重興月餘, 始與海眼相見, 距今已三十五年, 中間聲息邈然不相聞, 今忽見之, 俱各驚喜, 遂呼韻同賦」.

40) 김창흡, 『삼연집습유』 권9, 「過妙寂洞口」.

41) 김창업, 『노가재집』 권4, 「謹次叔氏過妙寂洞口韻」.

42) 송인(宋寅), 『이암유고(頤庵遺稿)』 권12, 「水月亭八詠[汲古李洪男]」; 임제(林悌),

白堂)을 두른 열두 명산 가운데 하나로 묘적산을 언급하기도 했다.⁴³⁾ 이밖에도 산세의 흐름 등을 언급하거나 묘적산의 원경을 지목한 기사는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⁴⁴⁾ 이상은 모두 묘적산의 외형적 묘사되어 있지만 그 명승적인 의미를 보기에는 충분하다.

반면 18세기로 접어들며 묘적산을 직접 유람한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장동김문의 유람이 계승된 결과로 볼 만하다.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시는 다음과 같다.

| | |
|--------|------------------------------------|
| 曲折千溪轉, | 굽이지고 꺾여 온갖 시내 돌아들고 |
| 幽深一鳥鳴. | 그윽하고 깊은 곳에 한 마리 새 우네. |
| 時逢峒客話, | 이따금 산속 나그네 만나 대화하니 |
| 如入武陵行. | 마치 무릉(武陵)으로 들어가는 듯하지. |
| 偶爾得佳處, |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장소에는 |
| 洗然無俗情. | 맑고 깨끗하여 세속의 정취 없구나. |
| 巖阿愁寂寞, | 바위 언덕에서 적막함 근심해도 |
| 萬古碧崢嶸. | 오랜 세월 동안 푸르게 우뚝하리라. ⁴⁵⁾ |

이의현이 1708년 묘적산으로 향하는 길에 지은 시이다. 세속의 자취가 묻어나지 않는 묘적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으로 점철된다. 그저

『임백호집(林白湖集)』 권2, 「水月亭八詠」; 이홍남(李洪男), 『급고유고(汲古遺稿)』 권하(下), 「水月亭八詠」.

43) 박미(朴彌), 『분서집(汾西集)』 권11, 「靑白堂記」. 박미는 청백당을 두른 산으로 청계산(靑溪山)·관악산(冠岳山)·남한산(南漢山)·검단산(黔丹山)·운길산(雲吉山)·천마산(天磨山)·묘적산·수락산(水落山)·면악산(面岳山)·갑산(岬山)·도봉산(道峯山)·삼각산(三角山)을 명시했다.

44) 허적(許積), 『수색집(水色集)』 권7, 「夢烏亭記」; 강세황(姜世晃), 『표암고(豹菴稿)』 권5, 「題知樂窩八景帖後」; 이유원(李裕元), 『가오고략(嘉梧藁略)』 책12, 「退川憩廬記」 등 참조.

45) 이의현(李宜顯), 『도곡집(陶谷集)』 권1, 「妙寂途中」.

평범한 산의 정취를 읊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의 배경을 돌아보면 그 내막은 심상치 않다.

이의현의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이다.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이세백(李世白)의 아들로 훗날 자신은 영의정에 올라 부자 정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세백의 모친은 김광찬(金光燦)의 딸이고, 김광찬은 김수증(金壽增)·김수홍·김수항 형제의 부친이 된다. 이로 인해 이의현은 장동김문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더욱 각별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의현은 김창협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묘적산을 방문해 이 시를 지었다. 앞서 이운이 김창협 사후 스승의 자취를 그리며 묘적산 취미사를 방문했던 것처럼, 이의현 또한 스승이 평생 별서를 꿈꾸었던 묘적산을 찾아 그 자취를 추억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인용된 작품에서 미련의 구절은 이러한 심상을 읊은 것이 분명하다. 7구의 적막한 묘적산의 모습에서 세상을 떠난 김창협을 추모했고, 8구에서 스승의 위상이 오랜 세월 기억되리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김창협(金昌協)의 영향으로 묘적산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의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묘적산의 아름다움은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생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신정하(申正夏)가 신무일(愼無逸)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 인식이 드러난다.

어제 저녁, 묘적산의 승경을 전하는 자가 아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비평하였습니다. “그 둘은 풍악(楓嶽)이고, 그 골짜기는 중흥(中興)이며, 그 숲은 용문(龍門)입니다. 수석(水石) 사이에 사찰을 지을 만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조(魚鳥)나 미록(麋鹿)과 같이 산중에 벗으로 삼을 만한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⁴⁶⁾

46) 신정하, 『서암집』 권8, 「與愼敬所兄」: 昨夕, 有傳妙寂之勝者, 爲弟細評曰: “其石

신정하는 신무일에게 편지를 부쳐 묘적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신정하에게 묘적산의 승경을 들려준 이가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앞서 묘적산 아래 담화현에 살았던 이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다. 그 둘은 금강산과 같다고 하였고 끝짜기는 북한산의 중흥동(中興洞)에 비견되었으며 우거진 숲은 용문산(龍門山)과 같다고 하였다. 사실상 당대 최고의 승경으로 묘적산을 지목한 모습이다. 이는 직접 방문한 이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신정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마음이 맞는 몇몇 벗들과 함께 원굉도(袁宏道)의 유산기를 들고 유람하고픈 마음을 피려했다. 그중 구정훈(具鼎勳)과 묘적산의 주인이 되기로 마음을 함께했다면서 여기에 신무일이 참여하기를 은근히 종용했다.⁴⁷⁾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모두 장동김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신정하와 신무일은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실이 알려져 있고 구정훈 역시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김창집과 같은 일파로 몰려 유배형에 처해진 행적이 유명하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묘적산이 유람처로 각광 받은 현실은 김창협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 김창협(金昌協)의 죽음을 애도한 시에도 이러한 면모가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1713년(숙종 39) 이희지(李喜之, 1681~1722)가 삼주를 두고 지은 시이다.

| | |
|----------|-------------------------------------|
| 三洲遠勢水如天, | 삼주의 먼 형세 물은 하늘 같고 |
| 妙寂山高濕暮煙. | 묘적산 높은 곳 저녁 연기로 축축하네. |
| 返照忽穿雲脚散, | 석양이 홀연 관통해 구름발 흩어지니 |
| 西風無數上江船. | 서풍에 강에 오르는 배들 무성하구나. ⁴⁸⁾ |

則楓嶽，其洞則中興，其樹則龍門，水石間可置僧刹者甚多，至若魚鳥麋鹿可作山中友朋者無數。”

47) 신정하, 위의 글.

이희지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복(士復), 호는 응재(凝齋)이다. 이 사명(李師命)의 아들이자 이이명(李頤命)의 조카로, 앞서 김창협이 이이명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실을 돌아보면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희지는 김창협이 은거했던 삼주를 지나며 시를 지었다. 삼주는 김창협이 명명한 지명으로 생전 삼산각(三山閣)을 경영한 곳이다.⁴⁹⁾ 이희지는 이곳을 시로 읊으며 묘적산을 함께 언급했다. 사실상 삼주를 통해 김창협을 추모한 것으로 묘적산이 김창협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지 드러난다.

이는 단지 김창협이 생전 묘적산에 별서를 두고자 계획한 사실에 그치지 않는 듯하다. 김창협이 연보를 보면, 그의 나이 57세인 1707년 10월 삼주에 머물던 중 묘적사를 유람했고 이듬해인 윤3월에 백형 김창집을 모시고 다시 묘적사를 유람했다고 하였다.⁵⁰⁾ 이어 다음 달 4월 삼주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보면 묘적산은 김창협이 평생 마지막으로 뜻을 두었던 지향처이자 생애 마지막 유람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다만 19세기로 접어들면 이와 관련된 기록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세대가 지나면서 그 유람 또한 다소 시들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묘적사의 자취는 구한말까지 이어졌다. 김형규(金衡圭)의 일기에 묘적사를 유람한 내용이 보인다.

내가 여러 벗들과 함께 묘적사를 구경하러 갔다. 바람이 크게 불어 걸음을

48) 이희지(李喜之), 『응재집(凝齋集)』 권1, 「三洲」.

49) 삼산각은 김창협이 만년에 경영한 별서로 미호(溪湖) 동쪽에 자리한 별서이다. 삼산각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조명된 적이 있다. (김세호, 「김창협(金昌協)의 삼산각(三山閣)」, 『문헌과해석』 76, 문헌과해석사, 2016, 45~62쪽; 안대회, 「1710년 대 한강변 누정조사, 염경수의 「연강정사기」」, 『문헌과해석』 68, 문헌과해석사, 2014, 105~125쪽)

50) 『농암집』 권36, 「연보 하」.

51) 선행연구에서도 묘적산이 김창협이 생애에서 마지막 유람지였던 사실에 주목했다. (김영진, 위의 글)

건기 어려웠지만 바람을 무릅쓰고 묘적사로 들어갔다. 이때 하나의 계곡을 건너 들어갔는데 절을 보니 이곳은 초가집 두세 칸으로 작은 금불상 두 구가 중방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불전은 없고 앞에 네댓 층 되는 탑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이 절에서 허기를 달래니 갑자기 비가 내려 잠시 머물렀다. 마침내 돌아올 때 구곡폭(九曲瀑)을 둘러 구경했다. 오는 길에 비가 내렸는데 잠시 그쳤다 잠시 내리기에 비를 맞고 돌아왔다. 왕래한 여정이 30리이다.⁵²⁾

김형규가 1883년(고종 20) 3월 29일 묘적사를 유람한 기록이다. 조선 말기 다소 퇴락한 묘적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 화려하게 중창되었던 모습과 달리, 초가 몇 칸에 금불상만 모셔두고 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던 상황이라 하였다. 김형규는 벗들과 함께 묘적사에서 허기를 달래고 내려오는 길에 구곡폭(九曲瀑)을 구경했다. 오늘날 전하는 묘적사계곡의 폭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던 묘적사를 찾은 이유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가계를 보면, 김형규는 19세기 세도정치를 자행했던 장동김문의 일원으로 부친은 공조판서(工曹判書)·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한 김병운(金炳雲)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아들 김승겸(金承謙)의 양자로 들어가 가계를 이은 김원행(金元行)의 후손에 해당한다. 비록 먼 조상이었지만 김창협(金昌協)의 직계후손이 되니 선조의 자취를 느끼고자 이곳을 방문했으리라 짐작할 만하다. 묘적산이 장동김문에게 더없이 각별한 공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2) 김형규(金衡圭), 『청우일록(靑又日錄)』 계미(癸未)(고종 20년(1883), 「3월(三月)」: 余與諸友, 往觀妙寂寺, 風氣大作, 難以行步, 冒風而入妙寂寺, 時涉一溪而入, 觀寺則此乃茅屋數三間, 而小金佛二像, 坐於中房, 而無佛殿而前有一塔四五層而已, 療飢於此寺, 忽焉雨下, 有頃止, 遂回還時, 歷見九曲瀑, 而中路雨下, 乍止乍下, 冒雨而還, 往來里程三十里也.



미상, 『광여도(廣輿圖)』, 「도성도(都城圖)」 중 묘적산 일대, 18세기. 한강 남쪽으로 도성을 두른 산이 나열되어 있고 제일 우측에 묘적산의 이름이 보인다. 조선 후기 도성 근교를 대표하는 산으로 인식된 정황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묘적산과 묘적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묘적산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그 존재가 기억된 공간이다. 조선 전기 강무의 대상지가 되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선영의 명당으로 각광을 받았다. 한편, 조선 후기 장동김문의 문인들은 묘적사를 중심으로 묘적산을 유람했다. 특히 김창협으로 인해 유람이 이어지며 명승적 가치가 조명되었으니, 도성 근교에 위치한 주목할 만한 문화공간이었음을 알겠다.

이러한 묘적산은 오늘날 그 이름이 점차 일실되어 가는 상황이다. 일부 사전에 묘적산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만 지금의 지도에는 백봉산으로 표기되고 있고, 그 정상에도 백봉산이란 이름이 비석으로 새겨져 이것으로 더욱 널리 회자된다. 물론, 백봉산의 이름 또한 역사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용은 제한적이다.⁵³⁾ 오히려 백봉산의 지명이 일제강점기부터 빈번하게 등장하는 현실을 보면,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⁵⁴⁾

묘적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사전적 설명에는 묘적사를 원효(元曉) 때 창건된 사찰로 추정했고 조선 후기에는 인근에 묘소가 들어선 이유를 들어 폐사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수온의 기문에서 고려시대의 자취가 확인되니 그 연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선 후기 묘적사를 유람한 시들이 있으니 폐사로 추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 사실에 가깝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묘적산과 묘적사가 문화공간으로 주목된 기저에는 장동김문의 유람과 김창협에 의한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별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만하다. 오늘날 도성 근교에는 이처럼 저마다 의미를 지닌 곳들이 다수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의 결과가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53) 유한준(兪漢濤)은 족조(族祖) 유우기(兪宇基)의 묘지명에서 그의 묘가 백봉에 있다고 적시했다. 묘적산의 봉우리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기계유씨 선영이 가까이 있어 지역에서 국한되어 사용된 이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유한준(兪漢濤), 『자저속집(自著續集)』 책4, 「族祖承旨公墓誌銘 [并序]」)

54) 예를 들면, 1929년 발생한 공명단 사건을 들 수 있다. 공명단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마련하기 위해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우편차량의 현금을 탈취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범인들의 소굴이 백봉산에 있다고 하였다. (“和道面鹿村里栢峯山鹿岩窟中”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41 독립군자금모집 10(獨立軍資金募集10) 警察訊問調書, 「범인소재 발견의 건(犯人所在發見ノ件)」; 『신한민보』 1929년 5월 23일자, 2면 2단 등 참조)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한민보(新韓民報)』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 강세황(姜世晃), 『표암고(豹菴稿)』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김수온(金守溫), 『식우집(拭枕集)』
김수흥(金壽興), 『퇴우당집(退憂堂集)』
김정호(金正浩), 『대동지지(大東地志)』
김창업(金昌業), 『노가재집(老稼齋集)』
김창집(金昌集), 『몽와집(夢窩集)』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김창흠(金昌翕), 『삼연집(三淵集)』
김형규(金衡圭), 『청우일록(靑又日錄)』
박미(朴澗), 『분서집(汾西集)』
송인(宋寅), 『이암유고(頤庵遺稿)』
신정하(申靖夏), 『서암집(恕菴集)』
유한준(兪漢雋), 『자저(自著)』
유형원(柳馨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이유원(李惟源), 『가오고략(嘉梧藁略)』
_____, 『임하필기(林下筆記)』
이의현(李宜顯), 『도곡집(陶谷集)』
이홍남(李洪男), 『급고유고(汲古遺稿)』
이희지(李喜之), 『응재집(凝齋集)』
임제(林悌), 『임백호집(林白湖集)』
허적(許適), 『수색집(水色集)』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4, 휴머니스트, 2006, 1~540쪽.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경인문화사, 2016, 1~318쪽.

- 김세호, 「김창협(金昌協)의 삼산각(三山閣)」, 『문헌과해석』 76, 문헌과해석사, 2016, 45~62쪽.
- 김영진, 「스승의 뜻이 담긴 책, 『文趣』」, 『문헌과해석』 24, 문헌과해석사, 2003, 100~125쪽.
- 안대회, 「1710년대 한강변 누정조사, 엄경수의 「연강정사기」」, 『문헌과해석』 68, 문헌과해석사, 2014, 105~125쪽.
-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등사(懸燈寺)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 연구』 1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39~270쪽.

ABSTRACT

The history and cultural space meaning of
Myojeok-Mountain(妙寂山) in Namyangju

Kim, Se-ho

When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its capital in Hanyang(漢陽), the Gyeonggi(京畿) area was spotlighted as a cultural space near the capital. This gave rise to many cultural and historical places here, but research on them is still lacking. In this study, I studi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Myojeok-Mountain(妙寂山)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yojeok-Mountain belong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Yangju(楊州) a place that appears on various map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used as a hunting groun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used as a family burial ground and received attention for its feng shui(風水) value.

In the late Joseon dynasty, Jangdong Kimmun(壯洞金門) is believed to have transformed Myojeok-Mountain into a cultural space. Kim Sang-heon(金尙憲), Kim Su-heung(金壽興) and the sons of Kim Su-hang(金壽恒) emulated their predecessors and set foot on the Myojeok-Mountain. In particular, Kim Chang-hyeop(金昌協), the son of Kim Su-hang, appreciated the scenery of the Myojeok-Mountain and sought to build a Byeolseo(別墅) here, which was thought to be the last Byeolseo of his life.

The Myojeok-Mountain, which was noted by Jangdong Kimmun, has since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monk near the capital. Among them, the spatial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Kim Chang-hyeop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change. Later, writers visited Myojeok-Mountain and wrote poems about its beauty. These tours continued until the 19th century, and are proof of its unique cultural history.

Key Words

Namyangju, Myojeok-Temple(妙寂寺), Baekbong-Mountain(栢峰山),
Kim Chang-Heup(金昌翕), Lee-Un(李漉)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